

**KSC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July, August 2009 Edition



## International ICCRS Conference in Kkottongnae

International Conference was held in Kkottongnae, South Korea on June 1-9, 2009. An Open Rally was held, and over 50,000 attended the event as the picture shows.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over 1,000 people from 43 countries, including a Cardinal from India, 11 Archbishops from all over and a large number of priests and deacons from 43 countries.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팀 봉사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오순절의 재현을 위하여 세미나 봉사에 투신하고자 하는 봉사자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e-mail: [admin@kscusa.org](mailto:admin@kscusa.org) 또는 전화 253)223-8775 (이은경) 로 신청 바랍니다.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 변방의 불꽃, 스포케인 공소에 성령의 은총 함빡



신부님이 상주하지 않는 작은 공소에 성령의 불꽃이 활짝 피어 올랐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 5월 28일 부터 31일 까지 워싱턴주 스포케인 (씨애틀 공소)에서 열린 성령안의 삶 세미나. 곧자가 대학 캠퍼스에 모인 23명의 교우들에게 성령의 빛과 힘이 모여진 날들이었다.

“우리의 생활에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포케인의 작은 공동체에서 처음 열리는 성령안의 삶 세미나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는 이창재 부제, KSC 봉사자와 타코마 공소인 올림피아 기도회 봉사자들이 이끌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봉사자들이 도착하기 전, 그곳에서 유학중인 두 수녀님의 기도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

교우들은 주님의 능력-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난 날 성령 강림을 맞게 되었다. 세미나는 여러 교우들의 ‘기적’ 체험의 신앙 간증으로 끝을 맺었다

##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가르치는’ 진행 방식 지양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 깨닫게 된 하느님에 대한 체험 나눠야

북가주 성령 봉사자 협의회 (회장: 박 혜숙) 소속 봉사자 19명은 지난 3월 14일, KSC 상임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창재 부제의 지도와 KSC 사무국장 이 은경 줄리아의 음악 봉사로 ‘성령 안의 삶 세미나의 핵심 강의 주제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봉사자의 신앙체험 나눔 실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 개인적 하느님 체험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말씀과 가르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

세미나에 임하기 전 ‘성령 안의 삶’ 세미나에서 여러 차례 봉사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참가자 대부분은 이 날 세미나가 참석학 신자들에게 핵심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에게 보다 깊은 성서학적 지식이나 성경 말씀의 이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르침 위주의 강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세미나의 시작 부분에 제기된 이 창재 부제의 이 날 세미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은 많은 참가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즉 전형적인 성령 안의 삶 세미나의 “가르치는” 진행 방식은 봉사자와 세미나 참석자들 간에 신앙적, 감정적 괴리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봉사자 자신도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하고 반복적인 가르침에만 고착되어 버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착은 성령 하느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여 그 어떤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하려는 성령 세미나의 목적에도 어긋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가르침 위주의 진행을 탈피하여 이 날 세미나는 ‘성령 안의 삶’ 세미나의 제 1-3 강의의 핵심 주제들인 ‘하느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새 생명’을 주제로 참가한 봉사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깨닫게 된 사랑과 구원 자체이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 나눔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체험 나눔은 다른 참가자들과의 하느님 사랑과 현존에 대한 체험의 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습의 일환으로 10분 이내로 제약되었다. 각각의 체험 나눔은 그 전개 방식과 핵심 주제에 충실성과 긴밀성 등을 기준으로 이 창재 부제와 참가자 전부에 의해서 평가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세미나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이 “새로운” 체험 나눔 중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과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각자의 하느님 체험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강의의 핵심 주제에만 초점을 맞춰 체험 나눔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함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각자의 체험이 그저 한 개인의 특수한 환경에만 국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회성의 하느님 체험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자의 체험 속에서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일반적’인 말씀과 가르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도록 주님께 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 2009 Seminar Schedule

일자	행사	주최	문의
7/26 - 29	동남부 성장 세미나	동남부 봉사회	안 엘리사벳 704-975-5969
7/30 - 8/1	콜로라도 1차 청년 성장 세미나	콜로라도 봉사회	지 요셉 720-939-8046
8/1	동북부 청년 성령 대회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8/5	달라스 봉사자 세미나	달라스 본당	민 라파엘 21-437-8784
8/6 - 9	달라스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달라스 본당	민 라파엘 21-437-8784
8/19	타코마 봉사자 세미나	타코마 본당	이 은경줄리아 253-223-8775
8/20 - 23	타코마 성령 안의 삶 세미나	타코마 본당	이 은경줄리아 253-223-8775
8/22	북가주 성령 대회	북가주 봉사회	박 소피아 408-892-6016
8/22 - 23	남가주 성령 대회	남가주 봉사회	고 프란체스코 213-435-7550
8/28 - 30	밴쿠버 성장 세미나	캐나다 밴쿠버 본당	사 스테파노 604-939-0521
10/23 - 25	북가주 봉사회 세미나	북가주 봉사회	박 소피아 408-892-6016
10/18 - 21	동중부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중부 봉사회	<a href="tel:443-717-0886">443-717-0886</a>
10/25 - 28	51차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11/27 - 29	10차 청년 성장 세미나	동북부 봉사회	이 테레사 201-947-4717

# 빈 가슴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

윤 여형 분도, 캐나다 밴쿠버 본당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조용히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빈 가슴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가득 찬 마음으로,  
작은 허물 밀어 내지 않고 감싸도록, 모두 비워진 .....  
그래서 너무 짝 찬 삶에 흔적보다  
조금씩 공간을 채워가는,  
빈 가슴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어느 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은 갈등으로 괴로워할지 모르니  
모두 비워놓고 하얀 백지상태 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천천히 순서대로 조금씩 채워가도록,  
그리하여 오늘도 후회 없이 살았노라.....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을  
하루를 마친 시간에 맛보게 하소서.

다음날 다음날도,  
천천히 소박한 사랑으로 채워가도록  
날마다 빈 가슴이게 하소서.



KSC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소식지의 우편 배달을 중단하고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KSC News를 받고 싶은 성령 가족 여러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news@kscusa.org](mailto:news@kscusa.org) 로 보내 주십시오. 각 기도회에서는 소식지를 인쇄하여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월 호는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의 지원으로 소식지를 다시 인쇄, 우편 배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유익한 KSC News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작은 나눔 큰 기쁨

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험한 오솔길을 신작로로 만들듯이  
실낱같은 시냇물이 모여 힘찬 강물이 되듯이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이룹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을 피우고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춧돌이 됩니다.

여러분을 KSC 후원회에 초대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KSC 후원회원이 되면:

- KSC Newsletter를 직접 받습니다.
- KSC 출판도서를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 KSC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 됩니다.
- 매년 11월 1일 회원들을 위한 특별 미사가 봉헌됩니다. 정 회원의 회비는 월 \$10 또는 연 \$100 입니다.

회원 주소와 check 보내실 곳:

KSC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기다립니다.